

# 삼한시대 부산지역의 유적과 유물

이 상 율

(부경대박물관 학예연구관)

## 目 次

- I. 머리말
- II. 遺蹟과 遺物
  - 1. 溫泉洞遺蹟
  - 2. 福泉洞 萊城遺蹟
  - 3. 久瑞洞遺蹟
  - 4. 福山洞墳墓群
  - 5. 老圃洞墳墓群
  - 6. 東萊貝塚
  - 7. 朝島貝塚
- III. 遺蹟, 遺物の 時期와 分期的 特徵
  - 1. 釜山 出土 彌生系土器, 土師器系土器의 特徵과 意味
  - 2. 久瑞洞遺蹟, 福山洞墳墓群 遺構·遺物の 特徵과 時期
  - 3. 老圃洞墳墓群으로 본 三韓時代 後期 遺物の 變化와 特徵
- IV. 맺음말

## I. 머리말

부산·경남을 중심으로 하는 弁韓지역, 나아가 弁·辰韓이 성립된 영남지역은 지역적 특성을 뛰어넘어 현재에도 우리나라 삼한시대의 변화, 발전과정을 대변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삼한시대의 부산은 弁韓의 중심지대에 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辰韓과의 경계에 위치하는 지리적 특성을 함께 지니고 있었으므로 양 문화가 서로 혼합, 절충되는 특징을 보여주는 등 남부지방 삼한시대의 문화상을 복원하는데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주지하듯이 남부지방 삼한사회의 특징은 한마디로 韓國式銅劍과 粘土帶土器文化의 출현, 이어지는 瓦質土器文化의 성립, 前代의 지석묘를 대체하는 木棺墓의 등장, 鐵器文化의 성립 및 발달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특히 철기의 발달에 따른 농기구 및 공구의 鐵製化는 당시 사회의 생산력을 높이고 철제 무기류의 발달은 전쟁을 통하여 사회의 통합과 재편성을 가져왔다. 일찍부터 부산과 김해지역은 삼한시대부터 이러한 철기생산의 중심지로서, 양 지역의 정치적 통합과정을 거쳐 伽耶라는 고대국가의 형성에 바탕이 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산의 삼한문화적 특징은 이러한 사회변화의 과정 속에서 찾을 수 있으며 나아가 부산을 비롯한 영남지역의 삼한시대는 역사적으로 삼한문화의 중심지적 역할을 담당하였던 만큼, 부산의 역사 발전과정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시대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산의 역사에서 삼한시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부산의 삼한문화는 급격한 도시화로 인하여 이미 많은 부분이 소멸됨에 따라 현재까지 확인된 삼한시대 유적은 총 7개소에 불과한 실정이다. 더욱이 7개의 유적 중에서도 溫泉洞遺蹟, 久瑞洞遺蹟은 유물만이 수습되었기 때문에 유적의 전반적인 양상조차 파악하기 어려우며 이외의 유적 대부분은 시기적으로 삼한시대 후기 이후에 집중되어 있는데다 분묘 혹은 폐기장 유적으로 국한되어 있다.

이처럼 유적 훼손에 따른 자료의 부족과 특정시기, 특정 구조로 집중된 현상을 통해서는 부산의 삼한문화 내용과 계통, 주변지역과의 비교 연구를 통한 특징적인 문화상을 규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최근 부산과 인접해 있는 제 지역에서 弁·辰韓의 문화상을 밝히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하는 유적들이 다수 조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의 삼한문화 내용과 특징에 대한 연구가 더 이상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최대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이런 중요한 문화적 양상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에 해당하는 유적의 추가적인 조사가 무엇보다도 불가피한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겠으나, 한편으로는 기왕에 알려진 자료를 최근의 주변지역 조사 성과와 대비하는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다행히도 부산의 삼한시대 유적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비교적 정밀하게 보고된 바 있고, 나아가 최근에는 인근 지역의 제 유적과 비교해 가면서 유적의 일부 혹은 종합적으로 검토한 연구도 행해진 바 있다.<sup>1)</sup> 자료가 한정적인 현 상황에서 이러한 연구 성과는 전적으로 유효하다고 생각되므로 여기에서는 이들을 대부분 참조하였음을 미리 밝혀 둔다.<sup>2)</sup> 본고의 주목적은 부산의 삼

1) 유적보고서를 제외하고 대표적인 것만 간추리면 아래와 같다.

申敬澈, 1992, 〈金海禮安里 160號墳에 對하여〉《伽耶考古學論叢》1, (財)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申敬澈, 1992, 〈三韓·三國時代의 東萊〉《東萊區誌》, 東萊區誌編纂委員會.

金榮珉, 1996, 《嶺南地域 三韓後期文化의 特徵과 地域性》, 釜山大學校大學院 碩士學位論文.

洪潛植, 1997, 《釜山の 三韓時代 遺蹟과 遺物 I》, 釜山光城市立博物館 福泉分館.

安在皓·洪潛植, 1998, 〈三韓時代 嶺南地方과 北九州地方의 交渉史 研究〉《韓國民族文化》12, 釜山大學校 韓國民族文化研究所.

洪潛植, 1998, 《釜山の 三韓時代 遺蹟과 遺物 II》, 釜山光城市立博物館 福泉分館.

宋桂鉉, 2000, 〈弁·辰韓 文化의 形成과 變遷〉《고고학으로 본 변·진한과 왜》, 영남고고학회·구주고고학회 제4회합동고고학대회.

李在賢, 2002, 〈弁·辰韓 土器의 形成과 展開〉《영남지방의 초기철기문화》, 第11回嶺南考古學會 學術發表會.

2) 특히 부산의 삼한시대 유적만을 종합적으로 정리, 검토한 洪潛植, 1998, 《앞의 책》을 상당 부분 참조하였다.

한시대 유적에 대한 소개에 있으나, 기왕의 연구 성과로 드러난 分期的인 특징을 표지적인 유구·유물을 통해 살펴보면 부산의 삼한문화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간단하게나마 삼한시대의 시간적인 개념을 설정해 둘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서는 문헌학적 혹은 고고학적인 면에서 여러 연구자에 의해 삼한시대의 개념과 시기설정, 용어의 적절성 여부 등이 검토된 바 있다. 고고학적인 측면에서만 보더라도 연구자에 따라 上下限의 연대나 용어의 사용이 다르다. 그래서 이 시기를 가리키는 시대명으로 金海期, 熊川文化期, 初期鐵器時代, 原三國時代, 瓦質土器時代 등이 혼용되고 있는 실정이고, 上限연대도 기원전 3세기부터 기원전1세기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하다. 여기에서는 이에 대해 모두 검토할 수 없으나, 다만 해당 시기의 최대의 특징이 韓國式銅劍, 粘土帶土器(後期無文土器) 및 瓦質土器, 鐵器, 木棺墓(일부 木槨墓)의 사용에 있으므로 이들을 아우르는 시기로서 넓게 보아 기원전3세기~기원3세기로 삼고자 한다. 아울러 小碇기는 圓形粘土帶土器, 三角形粘土帶土器, 古式 및 新式瓦質土器의 구분을 근거로 삼한시대 초기·전기·중기·후기로 나누고 다시 각 期에 대해 이들의 공반관계에 따라 2단계로 나눈 安在皓·洪潛植의 분류<sup>3)</sup>를 따르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에서 삼한시대 초기는 기원전3세기~기원전2세기중엽, 전기는 이로부터 기원전1세기중엽까지, 중기는 2세기말까지, 후기는 3세기말까지 해당하는 시기가 된다.<sup>4)</sup>

3) 安在皓·洪潛植, 1998, 〈앞의 글〉.

4) 최근 安在皓는 토기를 기준으로 하여 삼한시대를 무문토기시대 후기와 와질토기시대 전·후기로 구분하고 각각의 小碇기로서 무문토기시대 후기는 전반·중엽·후반으로, 와질토기시대는 전·후기는 각각 전반과 후반으로 구분하였다. 기존의 碇기 구분과 달라진 것은 아니나 토기를 기준으로 한 용어로 재분류한 것인데, 本稿에서 따르고자 하는 기존의 분류에 대입한다면 삼한시대 초기는 무문토기시대 후기전반, 전기는 무문토기시대 후기중엽 및 후반으로, 중기와 후기는 각각 와질토기시대 전기와 후기에 대응한다.

安在皓, 2001, 〈無文土器時代의 對外交流〉《港都釜山》17, 釜山光城市史編纂委員會.

## II. 遺蹟과 遺物

### 1. 溫泉洞遺蹟

#### 1) 유적의 위치와 현상

이 유적은 부산시 동래구 온천동 소재 금강공원내 남단인 동남쪽으로 뻗은 해발 40~50m 정도의 나지막한 소구릉에 위치하고 있다. 1973년에 이곳에서 無文土器片이 채집, 보고<sup>5)</sup>되면서 처음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외의 정식조사는 행해지지 않았다. 유적은 발견 당시부터 보존상태가 매우 불량하여 단순한 유물포함층인지 집락유적인지 알 수 없었는데, 이후 이곳에 체육공원이 조성됨으로써 지금은 사실상 소멸되고 말았다.

#### 2) 유물(그림 1의 1·2)

2점의 無文土器가 채집되었으나 이들의 공반관계는 확실치 않다.

그림 1의 1은 적갈색의 彌生系土器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며 흡수성이 강하고 소성은 양호치 못하다. 구연부 상단은 수평면을 가지며 그 내측은 단면삼각형 돌대를 붙인 것처럼 돌출한다. 胴最大徑은 中位에 있으며 이곳에 단면삼각형 돌대를 돌렸다. 器面이 박리되어 정면기법은 불확실하나 동체부 외면에 卍을 바른 듯한 부위가 일부 잔존해 있다. 推定高 45cm, 口徑 21.0cm, 底徑 14.5cm.

그림 1의 2는 황갈색의 無文土器鉢이다. 태토는 사질성 점토이며 흡수성이 강하고 소성은 양호치 못하다. 器面의 박리가 심하여 전반적인 정면기법을 알 수 없으나 내면 일부에 縱方向으로 목리조정된 흔적이 희미하게 나 있으며 구연부 내측에 성형시의 지두압흔이 남아 있다. 高 12.0cm, 口徑 14.0cm, 底徑 8.0cm.

5) 申敬澈, 1984, 〈釜山 東萊溫泉洞 出土 無文土器〉《伽倻通信》10.

## 2. 福泉洞 萊城遺蹟

### 1) 유적의 위치와 현상

본 유적은 부산시 동래구 복천동 72번지 일대에 위치하며 현재 내성 초등학교 뒷마당이 유적의 중심부이다. 이곳은 사적 제73호인 東萊 福泉洞古墳群의 동남쪽 사면 아래쪽인데, 고분군과 동장대 사이에 형성된 계곡의 완만한 경사지대에 해당한다. 따라서 본 유적은 후술할 福山洞 墳墓群과 함께 福泉洞古墳群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1989년에 내성초등학교 뒷마당에서 동래교육구청사 신축 도중 유물이 출토됨으로써 부산시립박물관(現 부산박물관)에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목곽묘 7기, 토광묘 2기, 옹관묘 2기 등 4세기대 유구 11기와 삼한시대 수혈주거지 2동이 확인되었다.<sup>6)</sup> 아울러 주거지의 내부와 분묘 주위 퇴적층에서는 주거지와 같은 시기로 추정되는 상당수의 일본彌生系土器片이 출토되었다. 확인된 유구들은 공사로 인해 이미 상당부분이 파괴되어 유존 상태가 극히 불량하며, 공사구역 내 그 밖의 지역은 이미 整地되어 유구는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삼한시대와 삼국시대의 유구가 애초에 어느 정도 분포하고 있었는지는 모르나 잔존해 있는 유구만으로 본다면, 본 유적은 목곽묘가 주체를 이루는 삼국시대 유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그 이전에 삼한시대부터 주거유적이 先築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삼한시대에 해당하는 주거지 2동과 퇴적층 출토유물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 2) 유구와 유물

#### (1) 1호 주거지(그림 1의 3~12)

구청사 신축 공사와 4세기대 2·3호분의 축조로 인해 절반 이상이 파괴되어 주거지의 동벽과 북벽 및 바닥 일부만 잔존한다. 따라서 평면

6) 宋桂鉉·河仁秀, 1990, 《東萊福泉洞萊城遺蹟》, 釜山直轄市立博物館.

구조는 불확실하나 잔존상태로 보아 방형의 수혈주거지로 추정되며 규모는 길이 405cm, 너비 354cm, 현존깊이 46cm 정도이다. 벽면은 거의 수직되게 났으며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다. 내부시설로는 爐址 1개소가 북벽에 근접하여 확인되었으며 이외에 柱穴 2개가 검출되었는데, 이 중 爐址의 잔존형태가 주목된다. 이 爐址는 별다른 시설 없이 깊이 10cm 정도로 얇게 판 것으로서 형태는 부정형을 띠고 있다. 내부에는 단단한 燒土가 남아 있었다. 특히 爐址의 주위로는 1m 범위에 걸쳐 목탄과 燒土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양상으로 볼 때, 본 爐址는 주거지 내부의 일반적인 爐라기 보다는 製鐵과 관련된 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비록 爐의 확실한 형태는 의문이나 爐址의 주변 정황으로 보아 주거지 내부에서 간단한 鍛冶작업이 행해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1호주거지는 철기제작과 깊은 연관성을 가지는 유구라고 할 수 있다. 유물은 바닥 중앙 부근에서 彌生系土器 저부 2점, 방추차 1점, 철촉 1점, 북벽 부근에서 불명철기 1점, 동벽 부근에서 敲石 1점, 彌生系土器 구연부편 2점이 출토되었다.

그림 1의 4~8은 彌生系土器片이다. 대부분 적갈색을 띠며 저부는 甕의 것으로 추정된다. 器面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나 일부는 동체부 외면에 목리조정 후 물손질하였다. 4·8은 城ノ越式, 5~7은 須玖I式에 해당한다. 4: 殘存高 8.0cm, 口徑 13.0cm, 5: 殘存高 5.0cm, 口徑 23.8cm.

9는 敲石이다. 안산암제로서 외연 일부에 敲打痕이 나 있다. 長 10.9cm. 10은 不明鐵器인데, 鐵塊일 가능성이 크다. 長 6.3cm. 11은 연질제의 紡錘車이다. 直徑 4.2cm. 12는 鐵鏃이다. 莖部가 결실되고 銹化가 심해 전체 형태는 불확실하나 有莖式 柳葉形으로 추정된다. 殘存長 2.6cm.

(2) 2호 주거지(그림 2의 1)

1호주거지로부터 서쪽으로 2m 정도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역시 구

청사 신축 공사와 後代의 4호분이 중복 축조됨에 따라 절반 이상이 파괴되었다. 평면 구조는 불확실하나 1호주거지와 마찬가지로 방형으로 추정된다. 규모는 잔존길이 260cm, 잔존너비 160cm, 현존깊이 20cm 정도이다. 바닥은 생토면을 그대로 이용하였으며 爐址나 이외의 시설물은 확인되지 않았다. 동벽 부근에서 목탄이 다수 검출된 점에서 1호주거지와 유사한 성격의 주거지로 추정된다. 유물은 출토되지 않았다.

### (3) 퇴적층 출토유물(그림 2의 2~32, 3의 1~27)

1호주거지의 상부 및 분묘 주위의 퇴적층에서는 粘土帶土器 및 彌生系土器片이 다수 출토되었다. 이들은 모두 구연부나 저부의 잔편으로서 전체적인 정면기법을 알 수는 없으나 대체로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동체부 외면에 목리조정 후 물손질한 것도 있다. 검출된 총 58점의 잔편 중 粘土帶土器片은 4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彌生系土器이다. 粘土帶土器는 기종상 모두 甕인데, 점토대는 원형인 것과 삼각형인 것이 있다. 또한 彌生系土器는 기종상 甕과 壺로 구분되나 甕이 다수이며, 형식상 城ノ越式이 須玖I式에 비해 월등히 높은 비율을 점하고 있어 본 유적 시기와 성격의 일단을 엿볼 수 있게 한다.

## 3. 久瑞洞遺蹟

### 1) 유적의 위치와 현상

본 유적은 행정구역상 부산시 금정구 구서동에 위치한다. 금정산의 일맥이 서에서 동으로 완만하게 뻗은 해발 55m의 소구릉에 위치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하 소개할 유물이 출토될 당시인 1975년경에는 유적이 이미 택지조성공사로 상당히 파괴된데다 이후 대규모의 아파트단지가 조성되면서 지금은 거의 소멸되고 말았다.<sup>7)</sup>

7) 申敬澈, 〈釜山 久瑞洞 出土의 瓦質土器〉《嶺南考古學》2.

## 2) 유물(그림 3의 28~30, 4의 1~8)

출토된 유물은 정식 학술조사에서 출토된 것들이 아니라 모두 공사 중에 채집된 것들이다. 따라서 유구의 형태는 물론 수습된 유물 상호간의 공반관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들이 동일한 시기의 것들인지, 아니면 시기를 달리하는 것들이 섞여 있는지도 명확치 않다.

유물은 토기 8점, 鐵斧 및 環狀石器 각 1점, 曲玉 1점 등 모두 11점이다. 이 중 토기는 기종상 甕 2점, 주머니호 3점, 罍 1점, 短頸壺 1점, 器臺 1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無文土器인 甕 2점을 제외하고는 모두 瓦質이다. 이하 이들 유물 개개에 대한 설명이다.

그림 3의 28은 회황색의 와질제 주머니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둥근 바닥에 동체부 중앙을 강조하였으며 구연단은 뾰족하게 처리하였다. 내외면이 거의 박리되어 정면기법은 알 수 없다. 高 13.9cm, 口徑 12.9cm, 胴最大徑 15.5cm.

29는 황갈색의 와질제 주머니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며 소성은 양호하나 흡수성이 강하고 매우 무르다. 둥근 바닥에 동체부 중앙을 강조하였으며 구연단은 둥그나 외측에 홈이 지도록 처리하였다. 원래 全面에 흑색의 漆을 입혔으나, 대부분 박리되고 지금은 구연부 내면 주위 일부와 바닥 내면의 일부에만 남아 있다. 이외의 정면 및 조정기법 등은 관찰되지 않는다. 高 13.3cm, 12.6cm, 胴最大徑 16.3cm.

30은 회흑색의 와질제 주머니호이다. 태토는 정선된 점토이며 소성은 양호하다. 둥근 바닥에 동체부 중앙을 강조하였으며 구연단은 둥그나 외측으로 꺾어 처리하였다. 외면에 칠을 입힌 후 치밀하게 연마하였으나 상태가 좋지 않아 조정방향은 명확하게 관찰되지 않는다. 동체부 내면의 아래 부분은 橫方向 혹은 縱方向으로 불규칙하게 연마하였다. 高 12.6cm, 口徑 12.5cm, 胴最大徑 15.4cm.

그림 4의 1은 와질제 圓底壺이다. 태토에 장식립 등을 혼입하였으며 소성은 좋지 않다. 동체부는 편구형으로서 胴最大徑이 가운데에 위치한

다. 外反하는 口頸과 동체부와의 경계에 뚜렷한 稜이 저 있으며 구연단은 둥글게 처리하였다. 全面에 회흑색의 漆을 입혔는데, 박리가 심해 정면기법은 명확치 않으나 漆을 입힌 후 全面을 연마한 것으로 추정된다. 高 12.9cm, 口徑 11.7cm, 胴最大徑 15.0cm.

2는 황갈색의 와질제 甕이다. 정선된 태토에 소성은 양호하나 흡수성이 강하고 무르다. 또한 全面이 잘게 균열현상을 보이고 있다. 저부는 말각평저狀이며 동체부는 이로부터 완만하게 內彎하면서 구연단에 이른다. 구연단 외측은 흙을 지게끔 처리하였다. 器面의 상태가 좋지 않아 정면 및 조정기법은 관찰되지 않는다. 高 5.1cm, 口徑 10.4cm.

3은 전체적으로 명회갈색 혹은 담회갈색을 띠는 와질제 器臺이다. 受部 외면의 일부는 담암회색을 띤다. 정선된 태토에 소성은 양호하며 硬度도 높아 瓦質土器로서는 단단한 편이다. 이 토기는 臺部와 受(杯)部를 분리하여 제작한 후 兩者를 접합하여 완성한 것인데, 臺部와 受部의 접합부에도 등간격으로 3곳에 점토덩이로 접합한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다. 受部는 내면을 예새로 곱게 橫연마하여 물손질하였고, 외면은 물손질한 것만 관찰된다. 臺部の 외면은 예새로 정연하게 상하로 곱게 연마한 것이 뚜렷하게 남아 있고,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高 19.1cm, 口徑 21.0cm, 脚底徑 16.9cm.

4는 無文土器甕이다. 구연부는 결실되고 동체부와 저부만 남아 있다. 외면은 황적갈색, 내면은 암황갈색을 띤다. 태토에 석영, 장식립을 약간 혼입하였다. 器面의 박리가 심하여 조정, 정면기법은 관찰되지 않으나 내면은 예새로 상하 연마한 후 물손질한 느낌이 강하다. 殘存高 13.7cm, 胴最大徑 10.2cm, 底徑 5.0cm.

5는 동체부 상단에 파수가 부착된 無文土器甕이다. 적갈색을 띠는데, 태토에 석영, 장식립을 혼입하였으며 소성은 양호치 못하고 器面도 거칠다. 구연은 외측에 점토대를 돌려 단면삼각구연 형태로 만들었다. 내측은 뚜렷한 稜이 지면서 짧게 外反하는데, 그 형태는 무문토기시대 후기의 전형적인 斷面三角形口緣甕의 그것에서 퇴화되어 단순한 外反口

緣 형태로 이행하는 모습에 가깝다. 高 15.9cm, 口徑 12.7cm, 胴最大徑 12.3cm, 底徑 8.7cm.

6은 남색의 天河石製 曲玉이다. 반원형으로서, 측면의 직선부에 2개의 決入部를 만들고 端部에는 지름 0.2cm의 구멍을 뚫었다. 長 3.4cm, 幅 2.3cm, 두께 0.7cm.

7은 용도불명의 環狀石器이다. 중앙에는 구멍을 뚫었는데, 직경이 큰 쪽에서 작은 쪽의 방향으로 행하였다. 사암제이다. 直徑 7.9cm, 두께 3.5cm.

8은 鍛造鐵斧이나 수화가 심하여 잔존상태가 극히 나쁘다. 평면상으로 장방형을 띠어 身部와 銚部가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銚部 단면도 장방형이다. 長 7.3cm, 刃部幅 4.3cm.

#### 4. 福山洞墳墓群

##### 1) 유적의 위치와 현상

본 분묘군은 사적 제73호인 東萊 福泉洞古墳群의 구릉 남쪽 끝부분에 위치한다. 이곳은 일명 학소대라고 불리우는 구릉의 끝부분인 정상부에서 북동쪽으로 경사져 내려오다가 다시 높아지는 지점이다. 따라서 이 분묘군은 현재의 행정명칭으로 인해 福山洞墳墓群으로 불리우지만, 실제로는 福泉洞古墳群의 연장선상에 위치한다고 할 수 있다.

1988~89년에 걸쳐 福泉洞古墳群 주변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행해진 도로확장공사 도중, 법륜사 뒤쪽 구릉(복산동Ⅱ지구)에서 목관묘 2기(12·13호), 목곽묘 4기, 조선시대 溝狀遺構 1기가, 이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50m 떨어진 지점(복산동Ⅰ지구)에서는 목관묘 1기(7호), 목곽묘 6기가 각각 확인, 조사되었다.<sup>8)</sup> 이 중 Ⅰ지구는 주택이 들어서면서 지형의 삭평이 심하여 남아 있는 유구의 깊이가 매우 얇았다. 7호

8) 洪潛植, 1998, 《앞의 책》. 단, 후술하겠지만 보고자는 7호 및 12호 목관묘를 목곽묘로 분류하고 있다.

목관묘와 5호 목곽묘는 비교적 이른 시기에 속하나 나머지 5기의 목곽묘는 4~5세기대에 해당한다. 한편 II지구에서는 13호 목관묘가 등고선과 직교되게 설치된 반면 12호 목관묘와 4기의 목곽묘는 모두 등고선과 평행하게 설치되었다. 목관묘의 경우 중복이 없는 반면 목곽묘는 8·9호와 10·11호가 서로 중복되는데, 이 중 9·11호묘가 삼한시대에 속하나 8·10호묘는 4세기후반대의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7·12·13호 목관묘를 비롯하여 목곽묘 중 시기가 빠른 5·9·11호묘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 2) 유구와 유물

### (1) 7호 목관묘(그림 4의 9·10)

묘광의 길이가 긴 세장한 형태이다. 삭평이 심하고 충전공간의 범위 확인도 불가능하여 내부구조가 목관인지 목곽인지 불명확하다. 보고자는 유물이 묘광의 모서리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점에서 목관묘일 가능성을 예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장축방향이 인접한 목곽묘와 동일하고 깊이도 유사한 점에서 궁극적으로는 목관계 목곽묘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여기에서는 묘광의 평면형태나 유물의 배치 등 前者의 요소에 보다 더 중점을 두어 목관묘로 파악하고자 한다.

묘광은 길이 190cm, 너비 60cm, 현존깊이 20cm이며, 목관의 규모는 알 수 없다.

유물은 와질제의 兩耳附臺附廣口壺(그림 4의 10) 1점만이 출토되었는데, 口頸部가 절반 가량 결실되었다. 器面의 박리가 심하여 정면기법의 관찰은 불가능하다. 전체적으로 회흑색을 띠고 있으며 태토는 정선되었으나 소성은 좋지 않다. 高 18.2cm, 口徑 13.2cm, 脚底徑 8.5cm.

### (2) 12호 목관묘(그림 4의 11~13)

구릉의 서쪽 경사면에 위치한다. 공사로 인하여 유구의 대부분이 파

괴되고 일부만 남았다. 잔존규모는 길이 170cm, 너비 60cm, 깊이 60cm이다. 목관의 내부에는 봉토로 추정되는 갈색 점토와 부식토가 중앙을 향하여 완만하게 함몰되었다. 충전토는 갈색과 적갈색 부식토로 채워졌다. 공사에 의해 잘려나간 단애면 근처에서 倣製鏡 1점, 莖部가 동쪽으로 향한 鐵劍 1점이 출토되었다. 보고자는 목곽묘로 파악하고 있으나 출토유물로 보아 목관묘로 추정된다.

그림 4의 12는 鐵劍인데, 목곽의 주축방향과 나란하게 놓여져 출토되었다. 劍身部の 단면은 희미한 능형이며 身部에 비해 莖部가 매우 짧다. 莖部에 목질흔이 있는데, 關部까지만 남아 있다. 長 26.4cm, 莖長 3.1cm, 劍身幅 4.1cm, 莖部幅 3.0cm.

그림 4의 13은 소형의 重圈文日光鏡系倣製鏡이다. 절반 이상 결실된 데다 銅質도 좋지 않다. 周緣部를 따라 斜行櫛齒文帶를 돌리고 이로부터 중앙의 紐를 향해 蕨手文을 양각하였다. 徑 4.2cm, 두께 0.3cm.

### (3) 13호 목관묘(그림 4의 14·15)

등고선과 직교되게 설치된 목관묘이다. 묘광은 길이 166cm, 너비 94cm, 현존깊이 60cm이며, 목관의 규모는 길이 131cm, 너비 53cm, 깊이 44cm이다. 목관과 묘광 사이의 충전공간은 함몰되었다. 봉토는 풍화암 반편이 섞인 갈색 점토와 흑갈색 부식토를 교대로 쌓았다. 그리고 바닥 위의 최하층은 회흑색 부식토인데, 바닥 전면에 깔려 있어 목관이 부식된 흙으로 추정된다. 유물은 서쪽 장벽의 충전토내에서 甕 1점만 출토되었다.

그림 4의 15는 회청색의 와질 小形甕이다. 태토에 석영, 장석립이 다량 혼입되었으며 소성은 양호하다. 구연부 내외면은 회전물손질, 동체부와 저부는 물손질로 각각 정면하였다. 高 9.6cm, 口徑 9.6cm, 胴最大徑 9.7cm.

## (4) 5호 목곽묘(그림 4의 16, 5의 1~5)

평면형태가 방형에 가까운 목곽묘이다. 묘광은 길이 340cm, 너비 221cm, 현존깊이 20cm로서 삭평이 심하여 유구의 깊이가 매우 얇다. 충전토는 풍화암반이 혼입된 갈색 점토인데, 충전공간은 양 단벽이 좁은 반면 장벽쪽이 넓다. 목곽은 장방형이나 바닥에 목곽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띠狀의 회색점토가 확인되지 않아 결구방식은 알 수 없다. 목곽의 규모는 길이 285cm, 너비 121cm, 현존깊이 20cm이다.

출토된 유물은 토기류가 전혀 없고 모두 철기류이다. 목곽내 북쪽 장벽에서 鐵劍 2점, 鐵鎌 2점, 鐵斧 2점, 따비 1점이 출토되었는데, 鐵劍은 莖部가 서쪽으로 향하게 놓여 있었다. 또한 장벽의 서쪽 부분에서는 鐵劍 혹은 鐵矛片으로 추정되는 鐵片이, 동쪽 단벽의 충전공간 바닥에서는 無莖式鐵鏃이 출토되었다. 이하 이들 유물의 설명이다.

그림 5의 2는 모두 鐵鏃이다. 25개체분인데, 형태를 알 수 있는 것은 17점이다. 길이 6.5~11.2cm, 刺의 길이 0.7~2.4cm로서 크기와 모양에 다소 차이가 있으나 모두 無莖逆刺式에 해당한다.

그림 4의 16은 鍛造鐵斧이다. 대형과 중형 각 1점이 출토되었는데, 이 중 대형의 것이다. 身部는 거의 직선적이지만 銚部와의 경계에 미세하게 肩部가 관찰된다. 단점 상태가 매우 좋다. 銚部는 단면 타원형이며 내부에 목질이 채워져 있다. 長 20.6cm, 身部最大幅 6.4cm, 銚部徑 3.9cm, 銚部幅 5.8cm.

그림 5의 3·4는 鐵鎌이다. 4는 거의 완형이나 3은 절반 가량 결실되었다. 3은 남아 있는 형태로 미루어 보아 背가 직선을 이루는 直刃鎌일 가능성이 크다. 基部의 전후면에는 목질이 4와 동일하게 붙어 있으나 목질 폭이 4의 절반도 되지 않는 점에서 양자간에는 용도상의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최대너비는 基部에 있다. 長 13.5cm, 基部幅 4.7cm, 身部幅 2.5cm.

4는 曲刃鎌으로서 최대폭은 鎌身이 만곡되는 부위에 있다. 基部 앞

면에는 목질이 鎌身과 대칭을 이루면서 비스듬히 부착되어 있는 반면 뒷면에는 鎌身 방향과 일치되게 남아 있다. 낫과 자루를 견고하게 밀착 시킨 후 낫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썩기를 박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長 28.1cm, 基部幅 4.0cm, 身部最大幅 4.7cm.

그림 5의 5는 따비이다. 身部는 끝으로 갈수록 너비가 좁아지고, 단면은 중앙부가 약간 두꺼운 板狀이다. 최대너비는 身部와 鑿部の 경계 부위에 있다. 鑿部 내면에 목질이 부착되어 있다. 殘存長 19.7cm, 身部長 13.9cm, 最大幅 4.9cm.

#### (5) 9호 목곽묘(그림 5의 6, 6의 1~4)

4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8호 목곽묘에 의해 중부, 파괴되는데 최근의 도로공사로 인해 대부분이 파괴되어 일부 흔적만이 남아 있다. 주축 방향은 동서향이며 後代의 8호 목곽묘에 비해 바닥이 약 40cm 정도 깊게 설치되었다. 서쪽 충전토로부터 약 10c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장방형 板石 1매가 세워져 있으며 이 板石의 동쪽에 臺附廣口壺 1점이 부장되어 있었다. 본 板石의 위치상 목곽의 내부를 구획하는 경계석일 가능성이 있으나 전체적인 파괴가 심하여 명확치는 않다. 잔존하는 충전토의 경우, 암갈색 점토와 황색 풍화암반편이 섞인 갈색 점토로 채워졌다. 봉토는 목곽 중앙으로 향하여 U字狀으로 함몰되었는데, 갈색 부식토와 점토가 주류이며 최하층은 매우 단단한 흑색 점토이다.

출토된 유물은 臺附廣口壺 1점, 兩耳附廣口壺 1점, 鑄造鐵斧 2점인데, 臺附廣口壺 1점만이 원위치이며 나머지는 파괴된 흙더미에서 수습되었다.

그림 5의 6은 흑회색의 와질제 臺附廣口壺이다. 소성은 좋지 않으며 기형이 많이 찌그러진 파편이다. 동체부 외면에는 승문타날 후 8곳에 황침선대를 돌리고 이외의 대각, 口頸部, 동체부 내면은 모두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殘存高 26.5cm, 復元口徑 17.4cm.

그림 6의 2는 회청색의 와질제 兩耳附廣口壺이다. 태토에 세사립이 거의 없으며 소성은 좋지 않다. 口徑 전체와 동체부 외면 상방은 회전물손질로, 외면 하방과 내면은 물손질로 각각 정면하였다. 동체부 상방에 길이 1.0cm의 乳狀돌기를 대칭되게 부착하였다. 口頸 일부가 결실되었다. 高 17.7cm, 口徑 13.1cm, 胴最大徑 14.3cm.

그림 6의 3·4는 鑄造鐵斧이다. 서로 방향을 달리한 채 붙은 상태로 출토되었다. 이 중 3은 先端部가 결실되었다. 銚部 단면이 역시 사다리꼴을 띠며 내부는 흙으로 채워져 있다. 윗면의 좌우에 1조의 돌대가 있다. 長 13.2cm, 銚部最大幅 4.1cm.

4는 銚部 일부가 결실된 것이다. 銚部 단면이 사다리꼴이며 내부는 비어 있다. 銚部로부터 先端部로 가면서 나팔狀으로 벌어진다. 윗면의 좌우에 1조의 돌대가 있다. 長 15.1cm, 銚部最大幅 4.7cm.

#### (6) 11호 목곽묘(그림 6의 5~8)

4세기후반대의 목곽묘에 의해 중복, 파괴된데다 최근의 도로공사로 인해 대부분이 파괴되었다. 주축방향이 등고선과 평행하는 목곽묘이다. 묘광은 풍화암반을 파고 설치되었는데, 규모는 잔존길이 150cm, 너비 183cm, 현존깊이 50cm이며 목곽의 규모는 잔존길이 127cm, 너비 125cm, 깊이 50cm이다. 목곽의 내부에는 봉토로 추정되는 흙이 U字狀으로 함몰되었다. 봉토의 구성은 묘광 바닥 위의 흙이 흑갈색 점토이며 그 위로 갈색 점토와 부식토를 덮었다. 현재 20~30cm 가량 남아 있는 3곳의 충전공간에는 갈색과 흑갈색 충전토로 채워졌다. 유물은 서쪽 단벽에서 短頸壺 1점, 남쪽 장벽에서 鐵斧와 鐵鎌 각 1점이 출토되었다.

그림 6의 6은 와질 短頸壺이다. 태토는 정선되었으나 소성은 보통이다. 내외면 및 속심의 색상은 회청색이다. 동체부와 저부에 승문타날을 한 후 동체부에 횡침선을 돌렸다. 口頸部 내외면 및 동체부 내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高 23.8cm, 口徑 18.4cm, 胴最大徑 28.4cm.

그림 6의 7은 鍛造鐵斧이다. 身部の 양측선은 평행하나 刃部쪽으로 갈수록 다소 벌어지며 刃部는 밖으로 벌어져 弧形을 이룬다. 銚部の 단 접 상태가 매우 좋으며 단면은 장방형, 내면에는 목질이 없다. 長 15.8cm, 刃部徑 6.2cm, 銚部徑 4.3cm.

그림 6의 8은 鐵鎌이다. 基部 안쪽에 身部와 비스듬히 착장된 木柄의 목질이 남아 있고 그 반대편에는 木柄과 身部 사이에 끼워 넣은 쇠기로 추정되는 목질이 身部와 나란한 방향으로 남아 있다. 長 17.5cm, 基部幅 5.0cm, 身部幅 2.3cm.

## 5. 老圃洞墳墓群

### 1) 유적의 위치와 현상

본 분묘군은 행정구역상 부산시 금정구 노포동 142-1·2·4·5번지 일대에 분포하고 있다. 이곳은 서쪽의 금정산 정상부와 동쪽의 수영강 상류사이에서 강쪽으로 접해 있는 해발 125m의 낮은 야산 중 북서쪽 경사면 아래쪽에 해당한다. 이 지역은 울산이나 양산에서 부산으로 들어오는 입구로서, 수영강 상류를 끼고 그 주변에 충적지와 낮은 구릉이 다수 형성되어 있어 유적이 들어서기에 비교적 좋은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본 분묘군 주변지역에는 일찍부터 선사~역사시대에 걸친 여러 종류의 유적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즉 본 분묘군으로부터 북쪽 맞은편의 낮은 구릉에는 6~7세기대의 수혈식 석곽묘와 황구식석실묘로 이루어진 작장고분군이 있고, 구릉을 넘어 남쪽으로는 하정고분군이 위치한다. 또한 동쪽의 수영강 상류에는 양산 법기리고분군, 중류에는 임석지석묘와 두구동유적, 무문토기시대 분묘와 6세기대 고분군 및 7~8세기대 토기가마와 朝鮮前期의 기와가마로 이루어진 임석유적이 있다. 나아가 하류쪽에는 선동 신천고분군, 오륜대고분군 등이 있으며 오륜대고분군 주위에서는 磨製石斧 등이 채집되어 무문토기시대의 유적까지도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처럼

老圃洞墳墓群을 둘러싼 많은 유적이 분포하고는 있으나 대부분이 무문토기시대와 삼국시대의 것들이고, 삼한시대의 유적으로는 본 분묘군을 제외하고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老圃洞墳墓群은 1983년 처음으로 존재가 알려진 후,<sup>9)</sup> 부산대학교박물관과 부산시립박물관(現 부산박물관)에 의해 2차에 걸쳐 정식 발굴조사가 행해졌다.<sup>10)</sup> 이로써 확인된 삼한시대의 유구는 목곽묘 45기, 옹관묘 6기 등 총 51기이며 이외에도 무문토기시대의 주거지 2동이 조사되었다. 이들은 모두 구릉 사면에서 등고선과 평행하게 축조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우선 삼한시대에 해당하는 총 51기의 유구 중 분묘군의 연대와 특징을 대표하는 것들만 간추려 살펴보기로 하겠다.

## 2) 유구와 유물

### (1) 1호 목곽묘(그림 6의 9~15, 7)

묘곽은 길이 440cm, 너비 180cm, 현존깊이 24cm로서 평면비가 2:1 이상인 장방형 목곽묘이다. 북동쪽 일부는 소형의 2호묘와 중복되었다. 兩者의 선후관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으나 2호묘에 비해 상대적으로 묘곽이 좁고 깊이가 얇은 점, 유물의 잔존상태 등에서 1호묘가 2호묘의 일부를 파괴하고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1호묘의 구조는 조사의 불철저로 인하여 목곽의 규모와 충전공간의 유무 등을 알 수 없다. 다만 출토유물의 위치 등에 의해 목곽의 규모를 복원해 볼 때 길이 340cm, 너비 140cm 정도일 것으로 추정된다. 유물의 부장은 서쪽 단벽으로 치우쳐 토기류와 鐵矛를, 중앙의 좌우측에는 鐵斧와 有刺利器形鐵器를 각각 매납하였다. 또한 2호묘와 중복된 지점인 북동쪽 모서리에는 軟質甕 1점을 매납하였다. 이 軟質甕은 2호묘의 부장품으로 보고된 바 있

9) 尹炳鏞, 1984, 〈釜山老圃洞古墳群 一次發掘概要〉《年報》7, 釜山直轄市立博物館.

10) 釜山大學校博物館, 1988, 《釜山老圃洞遺蹟》.

尹炳鏞·宋桂鉉, 1988, 《釜山老圃洞遺蹟Ⅱ》, 釜山直轄市立博物館.

으나 2호묘의 바닥으로부터 10cm 가량 높은 상태에서 1호묘의 유물과 같은 높이로 출토되었기 때문에 1호묘의 부장품으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림 7의 2는 회흑색의 와질제, 3은 흑청색의 도질제 短頸壺이다. 동체부 외면에는 도질제가 승문타날을, 와질제는 縱方向 및 不定方向의 평행타날을 행한 후 중·상방에 걸쳐 각각 20열, 27열의 침신을 돌렸다. 내면은 모두 회전물손질 혹은 부분 물손질로 정면하였으나 와질제의 경우 동체부 상방에는 회전예새에 의한 정면흔이, 중·하방에는 板狀의 도구로써 縱方向으로 긁은 흔적이 남아 있다. 2 : 高 29.3cm, 口徑 19.5cm, 3 : 高 28.2cm.

4는 회흑색의 와질제 爐形土器이다. 소성은 좋지 않으며 박리가 심하다. 동체부 내면은 물손질, 그 외 全面을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高 9.7cm, 口徑 14.8cm, 脚底徑 12.9cm.

5는 적갈색의 軟質甕이다. 소성은 양호하다. 구연부는 회전물손질, 동체부와 저부 외면은 橫方向으로 평행타날한 후 빗질하였다. 高 11.0cm, 口徑 11.0cm.

6은 회황색의 와질제 蓋이다. 소성은 좋지 않으며 박리가 심하여 器面 관찰이 어려우나 상방은 물손질, 하방은 회전물손질한 후 외면 전체에 朱漆한 것으로 추정된다. 高 6.5cm, 口徑 15.8cm, 꼭지高 2.0cm.

7은 長身形鐵矛이다. 身部和 柄部 사이에 關部가 형성되어 있다. 단면은 身部가 능형, 柄部는 장방형, 銚部는 원형을 각각 띈다. 長 50.0cm, 身部長 26.1cm, 柄部長 6.2cm, 銚部長 17.7cm.

그림 6의 9는 有刺利器形鐵器이다. 身部에서 선단부로 가면서 부채꼴을 띠는데, 선단부는 중앙이 들어간 弧形이다. 身部에 刺는 없으나 전체 모습이 有刺利器에 가깝다. 銚部 단면은 원형이며 내면에 목질이 남아 있다. 長 16.9cm, 身部幅 9.5cm.

10은 鐵鎌의 선단부이다. 曲刃鎌이다. 殘存長 4.8cm.

11은 身部の 1/3 이상이 결실된 鐵刀子이다. 수화가 심하며 柄部에

목질이 부착되어 있다. 殘存長 8.5cm.

12·13은 鍛造鐵斧이다. 이 중 12는 소형이며 鑿部에서 身部로 연결되는 부위가 밖으로 벌어져서 구분된다. 鑿部 단면은 타원狀의 장방형, 내면에 역시 목질이 남아 있다. 長 7.2cm, 刃部幅 3.9cm, 鑿部幅 3.1cm. 13은 대형으로서 鑿部에서 身部로 연결되는 부위가 약간 튀어나왔고 身部の 양측선은 평행하다. 鑿部 단면은 타원형, 내면에 목질이 남아 있다. 長 15.1cm, 刃部幅 6.0cm, 鑿部幅 3.9cm.

14·15는 鑄造鐵斧이다. 鑿部 단면은 사다리꼴인데, 14의 鑿部 내측에는 목질흔이 없으나 15는 부분적으로 남아 있다. 14 : 長 17.6cm, 身部幅 6.2cm, 15 : 長 17.3cm, 身部幅 6.4cm.

## (2) 3호 목곽묘(그림 8, 9의 1~7)

묘곽은 길이 330cm, 너비 230cm, 현존깊이 70cm로서 평면비가 2 : 1 이하의 폭넓은 목곽묘이다. 구조는 조사의 불철저로 인하여 목곽과 충전공간의 유무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유물의 배치상태로 보아 목곽이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는데, 유물의 배치를 고려하여 목곽의 규모를 복원해 보면 길이 250cm, 너비 180cm 정도로 추정된다. 유물의 副葬은 남쪽 장벽을 따라 토기류와 鐵矛를, 북동쪽 모서리 부근에는 短頸壺 2점을 매납하였다. 이외의 철기류는 북쪽 장벽을 따라 매납하였다. 또한 중앙에서 동쪽으로 다소 치우쳐 曲玉과 切子玉으로 구성된 頸飾이 출토되었는데, 이로 보아 피장자의 頭向은 동쪽임을 알 수 있다.

그림 8의 2·3은 크기가 다른 외질제 爐形土器이다. 모두 소성 양호하며 (혹)회색을 띤다. 2의 구연 및 대각 외면은 회전물손질한 후 縱方向의 연마, 肩部에는 사격자의 암문을 시문하고 동체부 하방의 내외면은 예세마연과 물손질 정면하였다. 대각에 장방형 투창을 등간격으로 8개 뚫었다. 高 18.6cm, 口徑 26.7cm, 脚底徑 19.4cm. 3은 구연 및 대각, 肩部 내외면을 회전물손질, 그외는 물손질 정면한 후 肩部에 사격자 암문을 시문하였다. 대각에 장방형 투창을 등간격으로 6개 뚫었

다. 高 8.3cm, 口徑 12.2cm, 脚底徑 10.5cm.

4~6은 회(혹)색의 와질제 (有蓋)臺附廣口壺이다. 5 및 6의 蓋는 소성이 양호하다. 壺의 口頸部와 대각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동체부 외면에는 중상위에 2조의 횡침선을 돌려 상하로 구획하고 각각 11~17조에 이르는 밀집중집선문을 등간격으로 11~13열씩 시문하였다. 5·6은 집선문과 집선문 사이의 면에 黑漆하였다. 동체부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5·6 : 高 34.6~34.9cm, 口徑 19.2~20.0cm, 脚底徑 20.0cm. 蓋의 구연부는 회전물손질, 蓋身은 물손질 정면하였으며 5의 외면에는 黑漆하였다. 高 1.7cm, 口徑 19.6~20.6cm.

7은 흑청색의 와질제 圓底短頸壺이다. 소성 양호하며 口頸部는 회전물손질, 동체부 외면에는 격자타날한 후 침선을 橫으로 7줄 돌렸다. 高 26.4cm, 口徑 16.5cm.

8은 회백색의 와질제 兩耳附直口壺이다. 소성 양호하며 口頸部는 회전물손질, 동체부 외면에는 격자타날하였다. 肩部에는 마름모꼴의 귀를 대칭되게 부착하였는데, 귀의 중앙에 원형의 구멍을 내었다. 高 24.4cm, 口徑 11.9cm.

그림 9의 1·2는 無莖逆刺式鐵鍬이다. 중앙에 袋가 남아 있으며 鍬身에는 이를 고정시키기 위한 구멍이 나 있다. 1 : 殘存長 6.4cm, 2 : 殘存長 6.0cm. 3·4는 刀子片이다. 모두 身部和 柄部를 구분하는 關部가 나 있다. 3 : 殘存長 14.6cm, 4 : 殘存長 9.0cm. 5는 鐵矛이다. 단면은 身部가 능형, 柄部는 장방형, 鏃部는 원형을 각각 띈다. 身部和 柄部를 구분하는 關部가 명확하며 柄部和 鏃部の 경계는 축약된 柄部에서 약간 폭을 넓게 하여 구분되었다. 長 30.6cm, 身部長 17.7cm, 柄部長 5.5cm, 鏃部長 7.4cm. 6은 소형의 鍛造鐵斧이다. 한쪽 斧身은 평행하나 다른 한쪽은 鏃部로부터 튀어나왔다. 鏃部 단면은 장방형, 내면에 목질이 남아 있다. 長 8.4cm, 刃部幅 4.2cm, 鏃部幅 2.5cm. 7은 頸飾이다. 수정제 曲玉 1점과 切子玉 2점, 유리제 玉 45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 (3) 8호 목곽묘(그림 9의 8~11, 10의 1~8)

묘광의 길이 380cm, 너비 200cm, 현존깊이 70cm인 비교적 폭넓은 목곽묘이다. 묘광을 판 후 바닥 全面에 적갈색 흙을 깔고 길이 300cm, 너비 140cm의 목곽을 설치하였다. 묘광과 목곽 사이의 공간에는 암갈색 부식토로써 충전하였다. 유물의 副葬은 서쪽 단벽에 치우쳐 토기류를, 반대편에는 頸飾 일부와 鐵鏃, 鐵斧 등을 매납하였다. 頸飾으로 보아 피장자의 頭向은 동쪽임을 알 수 있다.

그림 9의 9~11은 크기가 다른 와질제 爐形土器로서 (암)회색을 띤다. 9·11은 구연 및 대각 외면을 회전물손질 정면한 후 縱方向의 연마, 肩部에는 침선을 돌리고 상단에 사격자의 암문을 시문하였으며 동체부 하방의 내외면은 예새마연과 물손질 정면하였다. 9의 대각에는 세장방형 투창을 등간격으로 9개 뚫었다. 高 13.4~22.4cm, 口徑 15.7~28.7cm, 脚底徑 15.5~29.5cm.

그림 10의 1·2는 와질제 圓底短頸壺이다. 1은 회갈색, 2는 암회색을 띠며 소성은 양호하다. 口頸部는 회전물손질, 동체부 외면에 격자타달한 후 1은 침선을 8줄 돌린 반면, 2는 물손질 정면한 저부와의 경계에 짝기 정면하여 격자문 일부를 지웠다. 1: 殘存高 26.1cm, 2: 殘存高 22.3cm, 口徑 17.3cm.

3은 암회색의 와질제 臺附廣口壺이다. 口頸部와 대각은 회전물손질 정면한 후 외면을 縱方向으로 연마하였다. 동체부 외면은 중상위에 2조의 횡침선을 돌려 상하로 구획하고 밀집중침선문을 등간격으로 14열씩 시문하였다. 내면의 상방은 회전물손질, 하방과 저부는 橫方向의 예새깎기로 정면하였다. 소성은 보통이다. 復元高 35.0cm, 復元口徑 18.2cm, 脚底徑 17.7cm.

4는 無莖逆刺式, 5는 有莖式鐵鏃이다. 4의 중앙에는 袋가 남아 있으나 鏃身에 이를 고정시키기 위한 구멍은 확인되지 않는다. 殘存長 2.8cm. 5는 鏃身 단면이 편평한 柳葉形이며 莖部는 단면 장방형이다. 殘存

長 6.2cm, 鍔身幅 1.7cm. 6·7은 소형의 鍛造鐵斧이다. 斧身은 평행하나 刃部로 갈수록 폭이 넓어진다. 鍔部 단면은 6이 장방형, 7은 횡타원형을 띠며 내면에 모두 목질이 남아 있다. 6 : 殘存長 6.7cm, 鍔部幅 2.7cm, 7 : 長 7.8cm, 刃部幅 4.4cm, 鍔部幅 3.9cm. 8은 頸飾으로 추정되는데, 수정제 曲玉 2점과 切子玉 1점만 남아 있다.

(4) 21호 목곽묘(그림 10의 9, 11, 12의 1~7)

26호묘의 일부를 파괴하고 설치되었다. 묘광의 길이 470cm, 너비 230cm, 현존깊이 90cm로서 분묘군 중 대형급에 속한다. 바닥은 고르지 못하며 상면을 고르기 위해 全面에 황갈색 흙을 깔았다. 목곽은 길이 410cm, 너비 145~175cm로서 동쪽이 약간 넓다. 묘광과 목곽 사이의 공간에는 흑색, 황갈색, 회갈색 충전토가 층을 이루며 채워졌고, 목곽 내부에는 회갈색, 암갈색, 갈색의 부식토가 U字狀으로 함몰되면서 층을 이루고 있었다. 유물의 副葬은 서쪽 단벽에 치우쳐 토기류가, 반대편에는 옥류와 철기가 주로 출토되었다. 옥류의 위치로 보아 피장자의 頭向은 동쪽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1의 1~4는 大小의 와질제 爐形土器이다. 이 중 1·4는 소성이 불량한데다 마모가 심하여 정면기법의 관찰이 어렵다. 두 점 모두 회(흑)색을 띤다. 1의 대각에는 세장방형 투창을 8개 뚫었다. 1 : 高 19.0cm, 口徑 28.8cm, 脚底徑 29.5cm, 4 : 殘存高 12.0cm, 口徑 18.3cm.

2는 소성이 보통이며 동체부는 회색, 대각은 암갈색을 띤다. 구연 및 대각은 회전물손질한 후 대각 외면에 縱方向의 연마를, 肩部에는 삼각 집선문을 시문하였다. 대각에 세장방형 투창을 등간격으로 8개 뚫었다. 高 19.7cm, 口徑 29.3cm, 脚底徑 22.9cm.

3은 소성 양호하며 암회색을 띤다. 구연 및 대각은 회전물손질한 후 내외면 모두를 연마, 肩部에는 사격자 암문을 시문하고 하방은 연마하여 정면하였다. 동체부 내면은 깎기 수법으로 정면하였다. 대각에 세장

방형 투창을 등간격으로 8개 뚫었다. 高 21.8cm, 口徑 23.6cm, 脚底徑 23.5cm.

5·6은 와질제 有蓋臺附直口壺이다. 소성은 양호하나 器面이 마모되었다. 壺의 구연부와 대각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으며 동체부 외면에는 4~8개의 침선을 1조로 하는 침선대를 4열씩 배치하고 구연부와 침선대를 제외한 외면 전체에 黑漆하였다. 蓋는 회전물손질한 후 일부분 혹은 全面에 걸쳐 黑漆하였다. 5: 壺 高 26.7cm, 口徑 10.3cm, 脚底徑 17.2cm, 蓋 高 10.8cm, 口徑 17.7cm, 6: 壺 復元高 26.0cm, 復元口徑 9.4cm, 復元脚底徑 18.3cm, 蓋 殘存高 2.3cm.

그림 12의 1은 회흑색의 와질제 圓底短頸壺이다. 소성 양호하며 口頸部는 회전물손질, 동체부 외면은 격자타날하였으며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肩部 양측으로 乳狀돌기가 부착되어 있다. 殘存高 29.2cm.

그림 11의 7·8은 鐵矛인데, 서로 포개어져 출토되었다. 8의 長鋒鐵矛는 關部가 거의 직각에 가까우며 선단이 예리하다. 兩者의 단면은 鋒部가 마름모꼴로 동일하나 銚部는 7이 말각방형, 8은 8각형이다. 모두 銚部 내면에 목질이 없으며 표면에 초분류가 수착되어 있다. 7: 長 45.3cm, 身部長 24.7cm, 銚部長 20.6cm, 8: 長 77.2cm, 身部長 46.3cm, 銚部長 30.5cm.

그림 11의 9는 頸飾이다. 수정제 曲玉 1점과 切子玉 3점, 유리제 玉 38점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2의 2는 鐵刀子이다. 선단과 柄部가 같은 형태이며 刃區와 背區가 없어 구분이 뚜렷하지 않다. 殘存長 4.0cm. 3~5는 鍛造鐵斧이다. 모두 평면 사다리꼴인데, 銚部에 비해 5는 刃部幅이 좁은 반면 3·4는 넓어지나 銚部와의 구획은 뚜렷하지 않다. 3·4의 銚部 단면은 타원형, 4의 내면에는 목질이 가득 차 있다. (殘存)長 8.2~10.2cm, 刃部幅 2.6cm, 5.2cm, 銚部幅 3.6~3.8cm. 6·7은 有莖式鐵鏃이다. 柳葉形이며 단면은 鏃身이 볼록렌즈형, 莖部는 장방형을 띤다. 殘存長 4.2cm, 5.1cm.

## (5) 33호 목곽묘(그림 12의 8~10, 13)

후술할 35호묘 및 42호묘 일부를 파괴하고 설치되었다. 묘광의 동쪽 편 일부와 목곽내부의 서쪽 일부가 도굴로 인해 파괴되었으나 유구나 유물의 유존상태는 양호한 편이다. 묘광의 길이 340cm, 너비 195cm, 현존깊이 65cm로서 분묘군 중 중형급에 속한다. 상면에 해당하는 바닥에는 명갈색 흙을 한 벌 깔았다. 묘광과 목곽 사이의 공간에는 성격이 유사한 흙을 혼용하여 충전토로 채웠다. 충전토로 이루어 본 목곽의 규모는 길이 260cm, 너비 115~120cm로 추정된다. 목곽 내부에는 봉토로 추정되는 명적갈색, 명황갈색, 암갈색의 부식토가 U字狀으로 함몰되었다. 유물은 토기, 철기류 및 옥류가 매납되어 있었는데, 출토상태로 보아 목곽 내부에 매납한 것과 목곽 위(봉토내)에 副葬한 것으로 구분된다. 즉 옥류 및 피장자의 좌우로 놓여진 각종 철기류와 서쪽 단벽으로 치우쳐 매납된 토기류는 前者에 속하며, 중앙부에서 검출된 短頸壺와 鐵斧, 鐵鎌은 後者에 속한다. 옥류의 위치와 大刀의 柄頭방향으로 보아 피장자의 頭向은 동쪽임을 알 수 있다.

그림 12의 9는 와질제 臺附直口壺이다. 명회색을 띠며 소성은 양호하나 전반적으로 결실이 심하다. 구연부를 비롯한 외면은 연마 후 회전물손질,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復元高 19.1cm, 復元口徑 12.6cm, 復元脚底徑 17.1cm.

그림 12의 10 및 13의 1은 圓底短頸壺이다. 이 중 12의 10은 와질제로서 소성이 좋지 않고 마모가 심한 편이다. 동체부 외면에 승석타날한 후 위에서부터 회전을 이용한 침선을 23열 돌렸다. 박리가 심하나 이외의 器面에는 연마흔도 관찰된다. 高 26.1cm, 口徑 21.6cm. 13의 1은 소성 양호한 도질제로서 회흑색을 띤다. 동체부 중위 이상의 외면은 회전물손질하였으며 口頸部는 더욱 치밀하게 정면하였다. 내면, 특히 저부는 木理具로써 불규칙 방향으로 정면하였다. 구연부와 동체부 상방, 저부 내면에 자연유가 얇게 부착, 산화되었다. 高 13.4cm, 口徑 10.8cm.

그림 13의 2는 와질제 蓋이다. 소성은 양호하며 회흑색을 띤다. 외면은 연마와 회전물손질 정면을 병행하였으며 내면은 물손질 정면하였다. 高 5.4cm, 口徑 15.5cm.

3은 용도가 불명인 臺脚이다. 소성 양호한 와질제로서 외면은 연마 후 회전물손질, 내면은 회전물손질 정면하였다. 회흑색을 띤다. 高 7.2cm, 脚底徑 16.8cm.